

논문접수일 : 2014.07.06

심사일 : 2014.07.15

게재확정일 : 2014.07.29

조선시대 궁중정재복식의 디자인 요소와 특성

Design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Royal Court Dancing Costumes
in the Joseon Dynasty

박 가 영

승의여자대학교 디자인계열 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Park ga-young

Soongeui Women's College

1. 서 론

2. 조선시대 궁중정재와 복식

- 2.1. 궁중정재의 의미와 종류
- 2.2. 궁중정재에 착용된 복식

3. 궁중정재복식의 디자인 요소

- 3.1. 선과 형태: 정(靜)과 동(動), 겹침과 트임
- 3.2. 색채: 전통적 배색원리
- 3.3. 소재와 문양: 다양한 재질의 배합

4. 궁중정재복식의 디자인 특성

- 4.1. 철학적 상징성
- 4.2. 실험적 조형성
- 4.3. 절제된 단순성

5. 결 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조선시대 궁중정재복식은 궁중문화의 품격과 잔치의 화려함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에 문헌기록과 회화, 관련 유물을 연구자료로 삼아 전악·악공·여령·동기·무동·처용의 복식에 대해 역사적 고찰을 진행하고 디자인 요소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요소와 특징으로는 첫째, 선과 형태 요소에서는 끈을 활용한 동기복식의 정(靜)과 동(動)의 조화, 트임 사이로 보이는 중첩된 옷의 색상 대비로 인한 겹침과 트임의 효과가 있었다. 둘째, 색채 요소에서는 홍·록의 보색대비와 오방색을 세련되게 조화시키는 배색원리를 확인하였다. 셋째, 소재와 문양 요소에서는 참신한 재료와 문양의 도입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였다.

디자인 특성으로는 첫째, 철학적 상징성은 처용복식의 천원지방사상과 음양오행사상, 무동복식의 음양의 조화에서 찾았다. 둘째, 실험적 조형성은 평면과 입체방식을 동시에 사용한 악공의 꽃장식, 착용으로 완성되는 처용복식의 방슬 장식, 동기의 다중감각적 복식에서 찾았다. 셋째, 절제된 단순성으로는 극도로 제한하여 품위를 높인 전악복식과 동일색상배색으로도 조형미를 추구한 동기복식을 들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전통 복식미와 조형원리를 제시하였다. 궁중의 신분별 복식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

구의 축적을 통해 한국인의 기저에 흐르는 미적 감각과 추구이점을 이해하고 여기에 세계적인 트렌드를 접목시켜 한국 디자인의 정체성을 찾고 고유의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주제어

조선시대, 궁중정재복식, 한국적 패션 디자인

Abstract

Royal court dancing costumes in the Joseon Dynasty was very classy and splendid. Therefore documentary records, paintings and relics were used as research material to uncover the historical changes of *jeonak*, *akgong*, *yeoryeong*, *donggi*, *mudong*, and *Cheoyong's* costumes. Next, design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o adapt for Korean fashion design.

Research analysis of the design elements, such as line, form, color, material, and pattern, is as follows; First, the harmony of tranquility and movement and the effect of overlap and slit are found. Second, contrast color of red and green and the color matching principle of the five cardinal colors are understood. Third, unique materials and patterns are creatively used.

Research analysis of the design characteristics is as follows; First, philosophical symbolism, *cheonwonjibang* and the five elements theory for example, is discovered in *Cheoyong* and *mudong's* costumes. Second, experimental formative, such as decoration used plane and three-dimensional method simultaneously, is found in *akgong's* costumes. Third, understated simplicity is observed in extremely refined *jeonak* and *donggi's* costumes.

The aesthetics of traditional costume and formative principle are suggested through further research. Establishment of identity of Korean design and development of unique design will be possible if follow-up study is accumulated.

Keyword

Joseon Dynasty, royal court dancing costumes, Korean fashion design

1. 서론

조선시대 궁중에서 행해지던 잔치인 궁중연향 때 착용한 복식은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국가와 왕실의 대외적·대내적 위신과 관련된 문제이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직물인 사(紗)·라(羅)·릉(綾)·단(緞)의 사용을 금지하던 시대에도 연향을 위한 궁중정재복식만은 논외로 했을 정도이다. 이처럼 국가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특별관리 하였던 복식이었기에 품질은 물론 형태와 색상, 각 부분의 의미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제작하였다.

몇 백 년이 흐른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 디자인의 정체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유한 디자인의 부재와 모방의 답습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디자인 정체성(한국다움, Koreanness)이 조화롭게 구현된 우수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K-DESIGN 사업(한국디자인진흥원), 우리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 개발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전통문화 콘텐츠를 상품화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한(韓) 스타일 사업(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민자(2009)는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본토화와 글로벌화 과정에 있어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제다움을 찾기 위해 한국 전통 복식미의 현대적 활용을 중심으로 패션 디자인을 진행하고 사례를 축적한 바 있다. 이외에도 금기숙, 김영인, 유현정, 음정선 등 많은 연구자가 한국 전통 복식미의 현대적 활용과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적 디자인의 요소와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브랜드를 개발하고 국가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통 문화를 탐색하는 작업은 이미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상이 너무 광범위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조선시대 고품격 문화인 궁중의 정재복식을 대상으로 삼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제된 디자인 요소와 특성을 추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인의 내면에 계승되는 미적 감각을 확인하고 현대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회화고찰을 중점적으로 하고 여기에 본 연구자가 궁중정재복식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를 재구성하여 인물별 정재복식을 살펴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디자인 요소와 원리,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선시대 정재복식은

실물로 남아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으나 성종 대의 음악이론서적인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정재 종류별, 인물별 복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후 각종 연향에 관련된 『의궤(儀軌)』나 궁중기록화를 통해 각각의 변화양상을 고찰할 수 있다.

2. 조선시대 궁중정재와 복식

2.1. 궁중정재의 의미와 종류

궁중정재란 궁중연향에서 공연되는 악기연주[樂]·노래[歌]·춤[舞]으로 이루어진 종합예술이다. 정재(呈才)는 ‘재주와 기예를 바친다’는 뜻으로, 악기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공연물이다. 정재에는 중국계 춤 또는 중국계 춤을 본받아서 창제된 당악정재(唐樂呈才)와 우리 고유의 창작춤인 향악정재(鄉樂呈才)가 있으며(송방송, 2007), 고려시대는 그 구별이 뚜렷하였으나 조선에 들어와 점차 경계가 모호해져갔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당악정재와 향악정재가 서로 영향을 끼치며 변모하였고, 당악정재는 죽간자가 무용수를 인도한다는 특징 외에는 음악상으로 향악정재와의 구별이 어렵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정재가 전승되거나 폐지되거나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순조대에 대리청정을 하던 효명세자의 주도 아래 많은 정재가 창제되어 추가되었다.

궁중정재를 알기 위해서는 궁중연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궁중연향은 선행목적에 따라 회례연(會禮宴)·양로연(養老宴)·사객연(使客宴)·진연(進宴)으로 나뉘고, 참여자에 따라 외연(外宴)과 내연(內宴)으로 나뉜다.(김종수, 2001) 회례연은 왕과 신하가 화합하는 궁중잔치이고 양로연은 노인을 공경하고자 노인에게 베푸는 잔치이며 사객연은 외국사신에게 베푸는 잔치이다. 진연 역시 궁중에서 행해진 잔치이지만 군신간의 경직된 관계가 아니라 가족간의 친근함을 바탕으로 경사를 축하하는 잔치이다. 진연은 진풍정(進豊呈)·진연(進宴)·진찬(進饌)·진작(進爵)·수작(授爵)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한편 외연과 내연은 참여자에 따른 구분인데 연향의 종류에 따라 구분 기준이 조금 다르다. 즉 회례연과 양로연의 경우는 내연은 여성이 주축인 연향, 외연은 남성이 주축인 연향이다. 진연의 경우는 내연은 왕실 가족과 명부가 주축이 되는 연향으로 종친·의빈·척신 등 왕실 친인척이 참여하기도 하며, 외연은 정치를 주도하는 군신이 주축이 되는 연향으로 여성이 참여하지 않았다.(김종수, 2001)

2.2. 궁중정재에 착용된 복식

조선 전기 『악학궤범』과 조선 후기 의궤에 기록되어 있는 궁중정재에 참여한 인물들의 복식을 살펴보면, [표 1]처럼 전악복식·악공복식·여령복식·동기복식·무동복식·처용복식 등으로 구분된다.

인물구분	회화자료	문헌자료
1. 전악복식 (典樂服飾)		
	<무신진찬도병> 『조선시대 진연진찬 진하병풍』, p.54	『무신진찬의궤』 복식도 -청구기호 K2-2874, p.40
2. 악공복식 (樂工服飾)		
	<기사계첩> 『조선시대 연회도』, p.90	『무신진찬의궤』 복식도 -청구기호 K2-2874, p.40
3. 여령복식 (女伶服飾)		
	<정해진찬도병> 『조선 왕실의 여성』, p.96	『임진진찬의궤』 복식도 -청구기호 K2-2879, p.68
4. 동기복식 (童妓服飾)		
	<기축진찬도병> 『조선시대 진연진찬 진하병풍』, p.35	『임진진찬의궤』 복식도 -청구기호 K2-2879, p.69
5. 무동복식 (舞童服飾)		
	<신축진연도병> 『조선시대 진연진찬 진하병풍』, p.94	『임진진찬의궤』 복식도 -청구기호 K2-2879, p.68
6. 처용복식 (處容服飾)		
	<무신진찬도병> 『조선시대 진연진찬 진하병풍』, p.53	『무신진찬의궤』 복식도 -청구기호 K2-2874, p.42

[표 1] 인물별 궁중정재복식

2.2.1. 전악복식

전악복식은 정재를 지휘하고 이끌어가는 악사(樂師) 혹은 전악(典樂)의 복식이다. 유래를 보자면 『악학궤범』에서는 음악의 종류와 악사의 역할에 따라 복식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아악(雅樂)의 악사는 복두를 쓰고 붉은색 공복을 입고 붉은색과 흰색이 배색된 허리띠를 매고 신목이 낮은 검은 신을 신었다. 여기에 목에 흰색 천으로 만든 방심곡령을 둘렀는데 이는 사각형이 달린 둥근 목걸이 형태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天圓地方]는 동양의 우주관을 담고 있었다. 속악(俗樂)의 집박악사는 복두를 쓰고 초록색 비단 삼(衫)을 입고 검정색 가죽띠를 둘렀으며 신목이 올라오는 검은색 장화를 신었다. 속악의 협률랑악사는 사모를 쓰고 흑색 단령을 입고 자신의 품대인 흑각대를 땀다.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악사의 복식은 전악복식 한 가지로 수렴된다. 연향에 관련된 의궤들과 『타지준절(度支準折)』 등의 기록에서 악공복색은 전악복식과 악공복식으로만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병풍그림과 의궤 복식도에 그려진 모습은 모라복두를 쓰고 녹초삼을 입고 은야대나 오정대를 매고 흑피화를 신은 차림으로, 이는 『악학궤범』에서의 집박악사의 복식과 일치한다.

2.2.2. 악공복식

악공복식은 주로 악기를 연주하는 악생(樂生)과 악공(樂工)의 복식이다. 악생은 장악원의 좌방 소속으로 아악을 연주하던 양인(良人) 출신이고, 악공은 장악원의 우방 소속으로 향악과 당악을 연주하던 공천(公賤) 출신이었다. 『악학궤범』에서 악생은 개괘를 쓰고 백주중단 위에 비란삼을 입고 백주대나 금동혁대를 매고 속에는 백주고를 입고 백포말에 오피리를 신었다. 악생 중에서도 춤을 추는 악생들의 복식은 특별히 화려했으며, 문무(文舞) 보다는 무무(武舞)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악공 역시 행사의 종류와 자신이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복식이 존재했다. 개괘에 비란삼, 오관에 홍녹주삼, 복두에 홍주삼, 녹주두건에 흑단령, 융복 등의 복식이 있었다. 아악의 문무에 해당하는 속악의 보태평에는 진현관에 남주의를, 아악의 무무에 해당하는 속악의 정대업에는 피변에 남주의를 착용하였다. 군사를 상징하는 독(蠶)에 제사를 지내는 독제(蠶祭)의 악공은 투구를 쓰고 갑옷이나 방의 등 군사복식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연향의궤를 보면 악생과 악공의 복식은 화화복두를 쓰고 홍주의를 입고 오정대를 매고 흑화

를 신은 차림으로 통일된다. 이는 조선 전기에서 오관을 쓰고 홍주삼을 입은 모습과 유사한 차림으로 검정색 바탕에 꽃그림을 그린 복두를 쓰고 붉은 색 비단 단령포를 입고 허리에는 검정색 가죽띠를 맨 후 목이 올라오는 검정색 가죽 신발을 신은 모습이다.

2.2.3. 여령복식

여령복식은 정재를 주로 담당하는 여자 악인(樂人), 여령(女伶)의 복식이다. 전기에는 붉은 옷차림인 단장(丹粧)과 검은 옷차림인 흑장삼(黑長衫)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또한 나이에 따라 성년식을 치르고 머리를 올린 엽발기와 아직 머리를 땅아 내린 미성년의 피발기로 구분되어 헤어스타일이나 머리장식에 차이가 있었다.

후기로 내려오면서 여령복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였다. 머리에 화관을 쓰고, 남색상 위에 홍초상을 입고 초록저고리 위에 황초삼을 입은 후 가슴에 홍단금루수대를 매며 손목에는 오색한삼을 끼고 초록혜를 신었다. 춘앵전복식은 여령복식을 기본으로 착용한 후 팔꿈치 아래에는 홍금수구를 둘러매고, 어깨 위로 초록 하피를 걸쳐 가슴 위로 늘어뜨리는 접이 달랐다.

2.2.4. 동기복식

동기복식은 연화대 정재를 추는 어린 소녀[童女, 童妓]의 복식이다. 『악학궤범』에는 황장미와 홍장미를 꽃은 합립을 쓰고 붉은 비단에 금박무늬를 찍은 땡기인 유소와 결신으로 머리를 장식하며 붉은 색 비단으로 만든 단의·치마[裳;裳]·말군을 입고 비단 대를 매고 비단 신을 신은 차림이다.

조선 후기 연향의궤를 보면 합립은 점차 화관이나 연화관으로 바뀌어간다. 조선 후기 의궤에 기록된 동기복식은 화관을 쓰고 유소로 머리를 장식하고 단의와 홍라상과 홍주말군을 입고 금화라대를 매고 수초혜를 신은 차림이다.

2.2.5. 무동복식

무동복식은 외연에서 춤과 노래를 공연하는 남자 아이인 무동(舞童)의 복식이다. 남녀내외가 엄격했던 조선시대의 궁중연향은 참석자의 성별에 따라 정재를 올리는 사람의 성별이 정해졌다. 내연에서는 여령이, 외연에서는 무동이 정재를 담당하였다.(김중수, 2001)

『악학궤범』에 기록된 무동복식은 동연화관을 쓰고 여러 색 비단으로 만든 옷과 중단, 상을 입으며 두석

녹정대를 매고 꽃이 그려진 검정 비단신을 신은 차림이다. 겹옷인 단의(段衣)는 황·록·자·남·도홍의 다섯 가지 색 비단으로 만들고 안감으로는 붉은 색 비단을 사용하였다. 단의 속에 받쳐입은 중단은 깃을 겹옷의 색상에 맞춰 다섯 가지 색으로 달았다.

조선 후기의 무동복식은 효명세자의 주도 하에 새로운 정재악장들을 많이 선보였던 순조 무자년(1828) 행사에 정재별로 다채롭게 갖춰 입었으나 시대가 내려오면서 종류가 줄어들었다. 『기축진찬의궤(己丑進饌儀軌)』(1829)를 보면 바로 다음 해임에도 불구하고 무동이 전부 같은 옷을 입고 있다. 부용관을 쓰고 흥배가 있는 단령을 입고 단령 속에 단의(單衣)를 받쳐 입고 상을 두르고 두석녹정대를 두르고 화를 신은 차림이다. 다만 단령은 홍색·남색·흑색·녹색으로, 단의는 백색과 흑색으로, 상은 홍색과 남색으로 색상만 변화시켰다. 19세기 전후의 무동은 항상 같은 복식을 착용하고 있고, 회화나 재료 기록으로부터 홍색과 남색, 홍색과 녹색 등의 색상 변화만 확인된다. 당시 무동의 복식은 화관을 쓰고 홍화주의나 색동주의를 입고 그 속에 백단의를 받쳐입으며 허리에는 홍화주상을 둘러입고 홍람야대를 맨 차림이다.

2.2.6. 처용복식

처용복식은 처용무(處容舞)를 추는 다섯 처용의 복식이다. 처용복식은 사모·의·천의·길경·상·군·한삼·대·혜로 구성된다. 사모는 가면이 달린 관모로 주석귀고리·모란꽃·복숭아 열매와 나뭇가지 등으로 꾸며준다. 의(衣)는 청색·황색·홍색·백색·흑색의 오방색 비단 위에 꽃 덩굴 무늬를 그린 포이다. 비단옷이라는 의미의 단의(段衣)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앞길이보다 뒷길이가 길고, 깃은 둥글고 넓게 만들고 가슴에는 네모나고 긴 천을 대었다. 한삼은 다듬이질한 흰색 비단으로 만든 저고리이고, 군은 말군 형태에 앞·뒤 무릎 높이에 정사각형의 방슬을 부착하여 장식했다. 처용복식의 상(裳)은 여자가 입던 치마나 남자 관복에 갖추어 입던 의례용 상과는 전혀 다른 구조이다. 천의는 어깨 위로 걸쳐 앞으로 늘어뜨린 천으로 겹감은 녹색 비단, 안감은 홍색 비단으로 만들었으며 겹쪽에 덩굴 꽃 무늬를 그렸다. 길경은 좁고 긴 끈으로 안감·겹감 모두 홍색 비단으로 만들고 양쪽 끝은 녹색 비단으로 마무리하였다. 허리띠는 안쪽에 보조대가 달려서 ‘ㅅ’자처럼 생긴 금야대를 매었고, 흰색 버선에 흰색 가죽 혜(鞋)를 신다가 후기로 가면서 신목이 올라오는 검은 색 가죽 화(靴)를 신었다.

3. 궁중정재복식의 디자인 요소

3.1. 선과 형태: 정(靜)과 동(動), 겹침과 트임

연화대(蓮花臺) 동녀, 즉 어린 동기의 복식은 정(靜)과 동(動)을 오가는 가변적인 선(線)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동기복식은 좁고 긴 끈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춤사위에 따라 움직이는 선에 의한 복식미를 추구하였다. 머리에는 결신이라는 땀띠와 8가닥 끈으로 이루어진 유소를 장식하고, 모자인 합립의 양 옆에도 붉은 색 끈을 두 가닥씩 달아 늘어뜨렸으며, 가슴에는 금화라대를 매어 뒤쪽으로 길게 늘어뜨렸고, 그 위에 여러 가닥의 비단끈을 매단 치마를 착용함으로써 앞 뒤로 수많은 끈들이 나란히 놓이게 되었다. 특히 동기의 홍라상(紅羅裳)은 바지나 치마 위에 덧입었던 붉은 색 비단 치마로서 비단 끈[流蘇] 여러 가닥을 치마 위에 나란히 늘어뜨렸다. 이 끈들은 위만 치마허리 부분에 고정되어 있고 아래는 떨어져 있어서 360도로 빙글빙글 도는 춤사위를 하면 넓게 펼쳐 지거나 치마 위로 휘감기는 효과를 내게 된다. 모두 붉은 색이었기에 정지해있을 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정재가 시작되면 길이·너비·무게가 다른 끈들이 서로 다른 속도와 곡률로 움직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조형미를 이루었다.

조선시대 궁중정재복식은 겹침과 트임이 만들어내는 형태미가 탁월하다. 중첩의 미(美)는 대부분의 한국복식에서 발견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령복식 역시 겹쳐 입은 옷깃 사이로, 트임 사이로, 소매와 포의 자락 아래로 노출되는 옷의 색과 선이 고아하다. 예를 들어 [표 2]의 여령복식에서 황색 포[黃納衫]의 배자깃 안에는 저고리의 초록 깃과 흰 동정이, 황초삼의 앞자락 벌어진 틈으로는 홍초삼의 흰 치마 말기가, 황초삼의 뒤트임 위에는 홍색 수대의 세로선이, 자그마한 옆트임 사이로는 청색 치마와 홍색 치마가 보인다. 황초삼의 소매자락 아래로는 여령의 초록 저고리 소매가 보인다. 춘앵전 여령의 복식에서는 황초삼의 소매 위로 홍색 비단 비구가 들려져 있다. 동기의 붉은 색 비단치마의 윗부분에 나란히 달린 비단 끈들 역시 트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였다. [표 2]의 처용복식을 살펴보아도 오방색 의(衣)의 옆트임 사이로 보이는 군(裙)과 상(裳), 오방색 의의 소매부리에서 길게 뻗어나온 한삼의 흰 소매자락, 초록색 걸감과 홍색 안감으로 나부끼는 천의(天衣)와 길경 사이로 보이는 오방색 의에서도 겹침과 트임의 아름다움이 발견된다.

이상의 여령·춘앵전여령·동기·처용복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궁중정재복식은 여러 가지 색상의 옷

을 겹쳐 입고, 길고 짧은 트임들이 착장을 통해 서로 어우러지면서 춤사위를 통해 연출되는 유기적 조형미가 돋보였다.



[표 2] 여령복식과 처용복식의 겹침과 트임

3.2. 색채: 전통적 배색원리

궁중정재복식에서 자주 발견되고 가장 눈에 띄이는 첫 번째 배색은 홍색과 녹색의 보색대비이다. 악공복식의 예를 들어보면 [표 3]처럼 한 악공과 다른 악공 사이에서, 복식품목과 품목 사이에서, 하나의 복식품목 내에서, 악공복식과 주변인물복식에서 홍·록의 보색체계를 반복하고 있다.

구분	사례
악공-악공	홍주의 악공과 녹주의 악공의 교대 배치
동일인물의 복식품목 간	악공: 홍주의와 녹색 흥배, 녹주의와 홍색 흥배 악생: 홍색 비란삼과 녹색 금동학대 관현맹인: 녹색 두건, 압두록색 단령, 홍색 띠
단일복식 내	홍주의와 녹주의의 모란꽃 흥배 홍말액삼화오관의 모란꽃 장식
악공-주변인물	전악의 녹초삼과 악공의 홍주의

[표 3] 악공복식을 중심으로 본 홍·록 대비 사례

첫째, 악공들은 자신의 위치에 따라 홍주의(紅紬衣)와 녹주의(綠紬衣)를 전·후·좌·우 교대로 입었다. 홍주의와 녹주의의 배열은 대체로 좌우 대칭이며, 인물마다 가능하면 사방에 다른 색이 놓이도록 교대로 착용하고 있다. 『악학궤범』에는 인물의 위치를 글로 적어 놓은 배치도[文班次圖]가 그려져 있는데, 그 중 몇 개의 배치도에는 인물 앞에 '홍(紅)' 또는 '녹(綠)'이 적혀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부터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사업”에서 『악학궤범』 인물의 복식 착용 모습을 2D와 3D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한 이미지를 제시한 바가 있다.(문화콘텐츠닷컴) [표 4]는 『악학궤범』의 기록을 토대로 홍주의를 착용한 악공과 녹주의를 착용한 악공을 그리고, 문반차도에 홍색과 녹색을 표시한 후, 홍주의와 녹주의의 착용 인물을 문반차도에서의 악기 편성 배치대로 가상 재현한 과정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했을 때 악기에 따라 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 각 행사마다 색이 어울리도록 교대로 배치하는 원칙을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홍주의(紅紬衣)는 홍색 비단 포로서 가슴과 등에 녹색 바탕에 모란꽃을 그린 흉배를 달았고, 녹주의(綠紬衣)는 홍주의와 동일한 구조에 색상만 다른 녹색 비단 포로서 홍색 흉배를 달았다. 악생이 홍색의 비란삼에 녹색의 금동혁대를 맨 차림, 관현맹인이 녹색 두건을 쓰고 압두록색 무명 단령을 입고 홍색 가죽띠를 맨 차림도 홍·록 대비의 사례이다. 인물과 인물 사이 뿐 아니라 동일 인물의 복식 속에서도 보색대비를 이루었던 것이다.

셋째, 홍주의와 녹주의에 부착된 흉배에는 모란꽃을 그렸는데, 모란꽃은 또 다시 홍색 꽃과 녹색 잎으

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홍주의는 홍색 비단 포에 녹색 흉배를 달고, 녹색 흉배 안에는 홍·록의 모란꽃을 그렸다. 녹주의는 홍주의와 정반대로 색상을 사용하였다. 악공이 쓴 관모인 홍말액삼화오관 역시 홍색과 녹색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검정색 바탕에 모란꽃을 조화로 만들어 꽃거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역시 모란꽃의 붉은 색 꽃잎과 가지의 초록색 잎이 보색대비를 이루는 관모였다.

넷째, 조선 후기로 오면서 전악복식은 녹초삼, 악공복식은 홍주의로 대별되는 것도 홍·록 대비를 추구한 또 하나의 사례이다.








이상의 사례에서와 같이 홍색 옆에 녹색을, 녹색 안에 홍색을 사용함으로써 홍색과 녹색의 보색대비를 즐긴 조상의 배색 감각을 보여준다.

1단계: 복식의 고증 및 시각화		2단계: 문반차도 분석		3단계: 컴퓨터그래픽으로 가상 재현	
홍주의 악공		녹주의 악공		전정악(삼행) 문반차도	
					
연구자 작성		『악학궤범』(1493)의 기록 위에 연구자 색상 표시		문화콘텐츠닷컴의 “디지털 악학궤범” - http://www.culturecontent.com/	

【표 4】 『악학궤범』의 시뮬레이션화 과정

다음 두 번째 배색은 황(黃)·청(靑)·백(白)·적(赤)·흑(黑)의 다섯 가지 색인 오방색(五方色)의 배색으로 전통문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배색이다. 그런데 처용복식, 악공복식, 여령복식은 오방색을 세련되게 조화시키기 위한 배색 원리를 알려준다.

처용복식은 각 방위를 상징하는 5명의 처용이 착용하는 복식이다. 하지만 수많은 복식아이템 중에서 방위를 나타내는 복식은 의(衣)와 말군(襪裙) 뿐이다. 다른 아이템들은 연결한 복식의 색만 피할 뿐 오방처용이 모두 같은 색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방위를 상징하는 개념은 아니다. 『악학궤범』과 의궤의 기록으로 고증한 [표 5]에서처럼 처용의 의는 길감·안감·깃과 가슴·가장자리·끝동 부분의 색을 달리하여 색배합을 이루고 있으며, 이중 말군은 전체 색상과 장식인 방슬의 색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의	말군	중앙처용	
			
『무신진찬의궤』 복식도 -청구기호 K2-2874, p.42		연구자 작성	
동처용	서처용	남처용	북처용
			
연구자 작성			

【표 5】 처용복식의 기록과 오방처용복식의 고증

이처럼 다양한 색을 세련되고 조화롭게 사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원칙이 발견되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첫째, 방위별로 정해진 오방색을 의(衣)의 겹감에 사용했고, 겹감의 색은 다른 부위에 다시 사용하지 않았다. 즉 의의 겹감 색은 처용의 방위를 표시하며 이 색은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았다. 둘째, 의의 안감 색은 말군의 색과 같거나 비슷하게 만들어 구분이 잘 안되도록 하였다. 셋째, 백색(白色)은 서방(西方) 처용의 의(衣)에만 사용되었고, 다른 의복 부위에는 쓰이지 않았다. 반면 녹색은 오방색이 아닌데도 자주 사용된 것으로 보아 백색 대신 녹색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접한 부분은 항상 다른 색으로 구성하여 바로 옆에 같은 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원삼이나 활옷의 색동배색에서도 흔히 보이는 원칙이다.

방위	의(衣)						말군(襍裾)		
	겹감	안감	깃·가슴	가장자리	끝동1	끝동2	전체	가장자리	방슬
중앙	황(黃)	남초	홍금선	녹단	흑단	홍초	남단	녹단	홍단
동	청(靑)	홍초	홍금선	녹단	흑단	황초	홍단	녹단	흑단
서	백(白)	남초	녹금선	남단	흑단	황초	흑단	녹단	홍단
남	홍(紅)	남초	녹금선	남단	흑단	황초	흑단	녹단	홍단
북	흑(黑)	홍초	홍금선	녹단	녹단	황초	홍단	녹단	흑단

[표 6] 처용복식의 방위별 오방색 사용 원칙

악공은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 복식을 착용하였다. 궁중정재에서 악기를 연주한 악공의 복식은 홍색과 녹색의 대비를 강하게 보여주었으나, 춤을 담당한 악공은 춤의 내용에 따라 다른 아이템과 배색을 보였다.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며 지냈던 제사인 독제(纛祭)의 예를 들어보면, 황룡대기를 중심에 두고 청룡기·황룡기·적룡기·백룡기의 4가지 색 깃발을 든 인물을 포함하여 13명의 악생이 청·홍·황·흑·백의 오방색 비단 갑옷[오색단갑;五色段甲]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무기를 들고 춤을 추는 악생은 청방의(靑防衣)·홍방의(紅防衣)를 착용하였는데 청방의와 홍방의는 안감으로 황색 옷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춤사위로 인해 방의의 포 자락이 날리면서 청·홍·황의 삼색이 보이고, 여기에 검정 투구와 검정 회령, 흰색 모시로 만든 전대, 청·홍 옷감으로 만든 운혜(雲鞋)와 어우러지면 또 하나의 오방색이 연출되었다. 다시 말해서 독제를 올릴 때에는 [표 7]처럼 오방색을 사용한 깃발, 오색 단갑, 방의(防衣)를 착용한 인물의 복식 일습 중의 오방색 사용으로 인물과 인물, 아이템과 아이템에서 오방색의 절묘한 조화를 찾을 수 있었다.

대상 및 인물	오방색				
	청	홍	황	흑	백
깃발	청룡기	적룡기	황룡대기 황룡기	-	백룡기
깃발을 든 악생	청색단갑	홍색단갑	황색단갑	흑색단갑	백색단갑
무기를 든 악생	청방의 운혜	홍방의 운혜	방의의 안감	투구 회령	전대

[표 7] 독제에서 보이는 아이템과 오방색

여령복식과 춘앵전복식에서는 오방색의 또 다른 사용원리를 추출할 수 있다. 오방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되 검정색 대신 자적색을 쓰고 초록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황초삼의 황색을 기본 색상으로 삼고 청색과 홍색 치마를 입고 홍색 수대를 들었으며 흰색 치마말기·거들지·동정을 갖추었다. 여령이라는 한 인물의 여러 복식 품목 속에서 청·홍·황·백이 조화를 이루었다. 특기할 만한 품목은 오색한삼이다. 오색한삼의 재료를 보면 홍·남·황·백색 비단과 자적색 비단으로 만들었다. 오방색으로 알려진 청·홍·황·흑·백 대신 청(남)·홍·황·자적·백을 사용한 것이다. 흑색을 대신한 자적색은 깃 주변의 방령과 어깨에 달린 색동에, 때로는 깃에 반복 사용되었다. 여기에 초록색은 황초삼의 반소매 아래로 보이는 저고리, 치마 밑으로 보이는 신발, 수대의 끝자락에 제비부리 형태로 보인다. 특히 춘앵전 복식은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초록 하피를 둘러춤으로써 전체 여령복식 중에서 초록색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졌고, 이로 인한 시각적 힘이 강화되었다.

3.3. 소재와 문양: 다양한 재질의 배합

무동복식에서는 색상·문양·재료에 있어서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다채롭게 전개하였다. 순조대 『무자진작의궤』(1828)를 보면 효명세자가 창제한 새로운 정재들이 다수 소개되고 있다. 조선 최고의 예술군주라고 불리는 효명세자의 명성처럼 정재만이 아니라 복식 역시 화려함과 다양성을 보인다. 각 정재를 가장 아름답게 살릴 수 있는 복식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각종 진연·진찬·진하 병풍에서 보여지는 여령복식은 오랜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이며, 동일한 행사에서는 거의 모두 동일한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자년 진작 때의 무동복식은 정재에 따라 다른 복식을 선보임으로써 궁중 잔치에서 시각적 즐거움을 더하였다. 정재별로 넓은 소매가 달린 포와 좁은 소매가 달린 포를 갈아입고, 각종 관모와 포와 대와 신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변신을 선보였으며, 수연장정제처럼 하나의 정제에 남단령·녹단령·흑단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표 8]은 『무자진작의궤』의 정제도·복식도 및 기록들을 바탕으로 무동이 착용한 복식을 고증한 후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모습으로 구현한 결과물이다.(박가영, 2010) 색상 면에서 본다면 녹·자·홍·황·남·백·흑·회·벽·옥 등 현란한 색의 조합을 보였다. 화점포의 나비 문양, 초록석죽화전복과 협수의 패랭이꽃[石竹花] 문양이나 금가자와 같이 조선시대 복식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이템, 백우호령과 백우업요 등 깃털을 사용한 아이템을 사용한 것도 일상성을 벗어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디자인이다.

	광수무	춘대옥축	춘앵전	고구려
정제도				
3D 디지털 고증				
	침수무	박접	무산향	공막무
정제도				
3D 디지털 고증				

[표 8] 『무자진작의궤』 무동복식의 3D 디지털화 - <순조무자진작의궤>에 나타난 궁중무용복식의 고증 및 디지털콘텐츠화. pp.115-116.

이상의 연구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디자인 요소	복식의 사례
선과 형태	정과 동을 오가는 가변적 선의 미, 동기복식 중첩에 의한 겹침과 트임의 여령, 동기, 처용복식
색채	홍색과 녹색의 보색대비로 화미한 악공복식 오방색 사용원리를 제시한 처용, 악생, 여령복식
소재와 문양	나비문양의 화점포, 패랭이꽃문양의 전복·협수 깃털을 재료로 사용한 실험적인 무동복식

[표 9] 궁중정재복식의 디자인 요소

4. 궁중정재복식의 디자인 특성

4.1. 철학적 상징성

처용복식은 사상이나 철학을 표현하는 함축적 상징성을 띠고 있다. 첫째, 중국 주(周)나라 이래로의 우주관이었던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천원지방(天圓地方) 사상을 담고 있다. 천원지방사상이 담긴 조선시대 복식 아이템이나 디테일을 살펴보면 둥근 깃의 중앙에 네모난 형태가 달린 방심곡령(方心曲領), 둥근 소매에 네모난 깃이 달린 심의(深衣), 왕의 둥근 용보(龍補)와 신하의 네모난 흉배(胸背)를 들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처용복식에서도 원형과 사각형이 동시에 사용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악학궤범』의 “깃은 둥글고 넓게 만들고 가슴에는 네모나고 긴 천을 대었다[領團而廣 胸方而長]”는 기록으로 보아 둥근 깃에 네모난 가슴은 동양의 전통적 우주관인 천원지방사상과 연결된다. 둘째, 오방처용이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오방색 역시 음양오행(陰陽五行) 사상을 담고 있다. 처용무에서는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중앙처용·동처용·서처용·남처용·북처용이 등장하여 각 방위별로 다른 색상의 옷을 착용하였고, 인물과 복식을 통해 음양오행사상을 구현하였다. [표 10]처럼 복식을 매개로 가치관이나 사상, 염원을 표현하는 것은 처용복식 디자인의 특징일 뿐 아니라 조선시대 복식의 특징이기도 하다.

천원지방사상	음양오행사상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사상을 둥근 깃과 네모난 가슴장식으로 표현하였음	오방을 상징하는 다섯 처용이 등장하여 각 방위별로 다른 색상의 옷을 착용하였음
『무신진찬의궤』 복식도 -청구기호 K2-2874, p.42	<무신진찬도병> (1848) 『조선시대 진연 진찬 진하병풍』, p.53

[표 10] 처용복식에 담긴 사상과 철학

무동복식은 남성복식을 기본으로 하고 여성복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함으로써 남녀의 성별 정보가 혼재되어 양성성(兩性性)을 지닌 복식이다. 조선 말기로 오면서 무동복식은 화관·홍화주의나 색동주의·백단의·홍화주상·홍남야대·흑화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는 백관의 관복 차림이지만, [표 11]에서 보듯이 화관은 통일신라 이래로 여성의 예복에 함께 착용하던 관모이며, 색동주의에서 소매 끝의 색동도 원삼·활옷

등 여성 예복에 사용되는 디자인이다. 이처럼 여성복식 품목이나 여성복식의 디자인을 혼용함으로써 전체 옷차림에서 양성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하여 비교적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모태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음양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 남자아이인 무동의 복식에도 남성적인 양(陽)의 요소와 여성적인 음(陰)의 요소를 함께 담아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화관	무동의 화관	영친왕비의 흥원삼	무동의 색동주의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복식 2천년』, p.43	『임진진찬의궤』 소장품 복식도 -청구기호 K2-2879, p.68	국립고궁박물관 『영친왕 일가 복식』, p.52	『임진진찬의궤』 소장품 복식도 -청구기호 K2-2879, p.68
여성 관모인 '화관'을 차용함		여성 예복의 '색동'을 차용함	

[표 11] 무동복식과 여성복식의 상관성

무동복식은 오방색이 아닌 독특한 색을 사용하였다. 『악학궤범』의 무동관복 중 의(衣)는 황·녹·자·남·도홍의 다섯 가지 색 비단으로 만들었다. 이는 양의 색인 청·적·황·백·흑의 오정색(五正色, 오방색)도 아니고, 음의 색인 녹·홍·검은 황색·벽·자의 오간색(五間色)도 아니다. 그런데 『세종실록』을 보면 시대가 조금 올라간 세종 때의 5가지 색은 녹·홍·벽·자·류였으므로 본래는 오간색으로부터 출발한 색이었으리라 추정된다. 순조 무자년(1828) 무동복식을 보아도 초록색죽화전복·초록협수에서의 녹색, 흥라포·흥라착수의·흥상에서의 홍색, 벽라포에서의 벽색 등 오간색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후기로 오면서 종류와 형태가 하나로 집약되고 청·홍을 주조색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무동복식의 색체계는 오간색을 시작점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4.2. 실험적 조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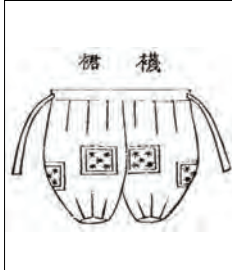


조선시대 복식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복식은 정적(靜的)이고 틀에 박혀있을 듯하지만 궁중정재복식 속에는 실험적인 시도와 디자인이 담겨 있다. 하나의 예로 악공의 오관(烏冠)은 검정색 바탕에 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식한 특징적인 관모였다. 전정 헌가나 고취에 썼던 화화복두도 꽃그림이 있었지만, 오관은 꽃을 그리기도 하고 꽃을 만들어 꽃기도 하였다. 『악학궤범』의 오관 기록을 보면 종이를 배접하여 형태를 만들고 안에는 고운 베를 배접한 후 검은 옷칠

을 하고 앞면에는 잎만 그리고 홍색 모시 꽃을 만들어 구멍에 꽂는 반면 뒷면에는 꽃과 잎을 모두 그렸다. [표 12]의 고증모습을 보면 오관의 앞면에는 잎만 그리고 나서 꽃을 만들어 꽂고 뒷면에는 꽃과 잎을 모두 그려서 평면적이면서도 입체적인 관모였다.

오관	오관의 착용모습		
			
『신역 악학궤범』, p.629	연구자 작성		

[표 12] 오관에서의 꽃의 표현방식

처용복식은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제작되고, 착용에 의해 최종 완성되는 디자인이었다. 말군(襪裙)에는 무릎의 앞·뒤 위치에 네모난 흥배 모양의 방슬(方膝) 장식이 있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쪽은 무릎 근처에 달리고, 뒤쪽은 허리를 약간 겹쳐서 여며입게 되면 양쪽의 방슬이 살짝 겹쳐지면서 하나의 방슬로 완성되는 묘미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한국복식은 굉장히 평면적인 구성이며 착용에 의해 우연히 완성되는 복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착용 후의 모습과 겹침분을 미리 고려하여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위치에 장식을 부착했었던 사실에서 사전 계획적인 디자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말군	말군의 착용모습	
		
『무신진찬의궤』 복식도 -청구기호 K2-2874, p.42	연구자 작성	

[표 13] 말군과 방슬

궁중정재복식 중 동기복식은 다중감각적인 복식 디자인이 돋보인다. 연화대 동기가 머리에 쓴 모자인 합립은 대나무·종이·비단으로 만들었으며, 관모 위쪽에 새깃털을 염색하여 잎을 만들고 그 위에 황색과 홍색의 장미를 올려서 장식하였다. 관모의 양 옆에 금방울을 달고 비단 끈을 2가닥씩 늘어뜨렸으며, 관모와 끈에 금박으로 꽃무늬를 찍었다. 이처럼 동기복식은 홍색과 금색의 조화, 둥근 반구형의 관모 위에

입체적으로 꾸민 장미와 잎사귀들, 금박무늬 등 색·형태·문양의 시각적 요소에, 움직임에 따라 크고 작게 울리는 금방울 소리가 청각을 자극하고, 장미꽃을 받치는 잎사귀로 사용된 새깃털의 부드러운 촉감이 여러 가지 연상을 동시에 일으키는 디자인이었다.

4.3. 절제된 단순성

정재를 지휘하는 전악의 복식은 단순하나 품위가 있었다. 조선시대 궁중정재복식의 특징 중 하나는 절제된 전악복식과 다채롭고 화려한 악공복식의 대비이다. 즉 품계가 낮은 악공은 다양한 복식과 장식, 강렬한 배색으로 잔치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반면 이들을 이끄는 전악은 단순하고 차분한 복식으로 궁중의 품격을 유지했던 것이다. [표 14]에서 전악의 복두는 장식없는 검정색 관모이고 악공의 화화복두는 검정색 바탕에 앞·뒤·양쪽 뺨에 꽃을 그려 장식하였다. 겹옷인 단령도 전악은 무늬없는 녹초삼을 입고 악공은 꽃그림 흥배가 달린 홍주삼을 입었다. 외형상 악공의 복식이 전악보다 화려하지만, 『탁지준절』에 기록된 비용을 살펴보면 의외로 전악의 복식이 고급이었다. 제작비용의 경우 악사의 모라복두는 6전 5푼이고 악공의 화화복두는 제작비용이 5전이며, 수리비용의 경우 악사용은 2전 2푼, 악공용은 1전 8푼이다. 전악의 복두는 단순한 검정색 관모이지만 고급 소재인 모라로 세심하게 만들었고 악공의 복두는 여러 위치에 꽃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소재에 제작공임도 낮아서 단가와 수리비가 적게 들었기 때문이다.

<p>『무신진찬의례』복식도 -청구기호 K2-2874, p.42</p>	<p><기사계첩> -『조선시대 연회도』, p.90</p>	<p><임인진연도병> -『조선시대 진연 진찬 진하병풍』, p.114</p>
--	---	---

[표 14] 전악복식과 악공복식

동기복식은 색의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여 붉은 색 한 가지로 수렴시키고 있다. 한국복식의 특징 중 하나는 겹감과 안감, 상의와 하의, 외의와 내의에 대비되는 색상을 배색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연화대정재를 추는 어린 소녀 무용수의 복식은 [표 15]와 같이 붉은 색 모자인 합립, 머리끈인 유소, 상의인 단의와 치마인 홍라상과 바지인 홍초말군을 입고 붉은색 허

리띠인 금화라대와 신발을 갖춘다. 이로 인해 단장(丹粧)이라 불리웠고, 옷차림 중 상의의 명칭은 단의(丹衣)이다. 붉은 색으로 동일색상배색을 이루고 여기에 초록색, 흰색, 노란색을 아주 적은 면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강조점을 두었다.

연화대 동기	합립	유소	금화라대
	<p>단의</p>	<p>홍라상</p>	<p>홍초말군</p>
	<p>단의</p>	<p>홍라상</p>	<p>홍초말군</p>
<p><기축진찬도병>(1829) -『조선시대 진연 진찬 진하병풍』, p.35</p>		<p>『원행을묘정리의례』(1795) -『잔치풍경 :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 p.102</p>	
<p>동기의 단장(丹粧)</p>		<p>붉은 색으로 한정시킨 복식 품목들</p>	

[표 15] 동기복식의 품목과 색상

이상의 연구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디자인 특성	복식의 사례
철학적 상징성	천원지방사상이 드러난 처용복식 깃,가슴
	음양오행사상이 담긴 처용복식 색상체계 음양이 조화된 양성적인 무동복식
실험적 조형성	평면성과 입체성을 동시 추구한 악공 오관
	착용에 의해 완성되는 처용복식의 말굽 방של 오감을 동시에 자극하는 동기복식
절제된 단순성	색상과 장식을 제한하여 고귀한 전악복식
	붉은 색으로 수렴시킨 동기복식

[표 16] 궁중정재복식의 디자인 특성

5. 결론

조선시대 궁중정재복식은 고품격 궁중문화의 정수인 동시에 연향과 정재의 성격상 화려함을 지닌 복식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궁중정재복식을 대상으로 디자인 요소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악학궤범』, 연향의례류, 『탁지준절』 등의 문헌기록과 병풍, 계첩 등의 궁중기록화, 관련 유물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궁중정재복식의 종류와 변천을 고찰하고 디자인 원리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궁중정재란 궁중잔치에서 공연된 종합예술로 악기 연주·노래·춤을 담당할 인물의 신분과 역할에 따라 전악·악공·여령·동기·무동·처용의 6가지 복식으로 구분하였다.

궁중정재복식의 디자인 요소는 선과 형태·색채·소재와 문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선과 형태 요소에서는 색상은 동일한 동기복식이지만 여러 종류의 끈을 사용하여 멈췄을 때는 고요하나 춤이 시작되면 끈들이 다른 속도와 곡률로 움직이면서 독특한 조형미를 표출하는 정(靜)과 동(動)의 조화가 있었고, 여령·동기·처용복식에서 여러 색상의 옷을 겹겹이 중첩하여 착용한 후 길고 짧은 트임 사이로 다른 옷이 보이도록 함으로써 겹침과 트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둘째, 색채 요소에서는 홍색과 녹색의 보색대비와 오방색의 배색원리를 확인하였다. 홍·록 대비는 악공복식을 중심으로 반복되었고 처용·악공·여령복식에서는 오방색을 세련되게 조화시키기 위한 배색원리가 적용되었다. 셋째, 소재와 문양 요소에서는 다양한 재질의 배합이 특징적이었다. 순조 무자년 효명세자가 창제한 정재의 무동복식은 나비문양·패랭이꽃문양·깃털 등 문양과 재료면에서 참신하고 새로운 재질을 도입함으로써 창의적 예술성을 높였다.

궁중정재복식의 디자인 특성은 철학적 상징성, 실험적 조형성, 절제된 단순성으로 정리되었다. 첫째, 철학적 상징성은 처용복식과 무동복식에서 찾을 수 있다. 처용복식의 둥근 깃과 네모난 가슴부분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사상이 반영되었고,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처용복식의 색상체계는 음양오행사상의 구현을 의미한다. 백관 관복을 기본으로 하고 여성복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한 무동복식의 양성성은 성별의 미분화 단계와 음양의 조화를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실험적 조형성은 악공·처용·동기복식에서 발견된다. 악공의 오관은 동일한 꽃과 잎을 표현함에 있어 평면적인 그림과 입체적인 조화(造花)를 동시에 사용하여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조형성을 추구하였고, 처용복식 말군의 방슬은 제작할 때 치밀하게 계산하여 착용할 때 완성되는 디자인이었으며, 동기복식은 시각·청각·촉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다중감각적 복식이었다. 셋째, 절제된 단순성으로는 전악복식과 동기복식의 예를 들 수 있다. 전악복식은 문양·색상·장식을 극도로 제한하되 고급 재료로 정성스럽게 제작함으로써 화려하고 강렬한 악공복식보다 오히려 고귀한 기품을 지녔고, 동기복식은 색상을 최대한 절제하여 붉은 색만 사용하되 아주 작은 면적에 강조색을 사용하고 끈을 많이 달아서 움직임에 의한 조형미를 추구하였다.

이상에서 조선시대 궁중정재복식의 종류와 변천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바탕으로 디자인 요소와 원리, 특성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수많은 궁중문화의 극히 일부분인 궁중정재복식만을 다루었다는

점이고, 이에 후속연구로 왕·왕비·문무백관·내외명부 혹은 왕실호위군사 등 궁중 각계각층의 복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고려할 수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각각의 복식미와 추구이점, 선호경향을 이해하고 여기에 세계적 트렌드가 반영될 때, 한국적 패션 디자인이 전통문화 요소의 단순한 차용이나 형태적 답습에서 벗어나 차별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편) (2010). 『영친왕 일가 복식』.
- 국립민속박물관 (편) (1996). 『한국 복식 2천년』.
- 국립중앙박물관 (편) (2009). 『잔치풍경 :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
- 김민자 (2009).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 전통미와 현대적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종수 (2001).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서울 : 민속원.
- 박가영 (2004). <악학궤범> 복식의 착용에 관한 연구. 『국악원논문집』, 16, 7-167.
- 박가영 (2010). <순조무자진작의궤>에 나타난 궁중무용복식의 고증 및 디지털콘텐츠화. 『한복문화』, 3(1), 103-120.
- 서인화, 박정혜, 주디반자일 (2000). 『조선시대 진연진찬 진하병풍』. 서울 : 국립국악원.
- 서인화, 윤진영 (2001). 『조선시대 연회도』. 서울 : 민속원.
- 송방송 (2007). 『증보 한국음악통사』. 서울 : 민속원
- 이혜구 (역주) (2000). 『신역 악학궤범』. 서울 : 국립국악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3-2005).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1-3. 서울 : 민속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조선 왕실의 여성』. 『樂學軌範』, 『朝鮮王朝實錄』, 『儀軌』, 『度支準折』
- 문화콘텐츠닷컴. (2014.6.25), <http://www.culturecontent.com/>
- 한국디자인진흥원. (2014.6.21), <http://www.kidp.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4.6.21), <http://encykorea.aks.ac.kr/>
- 한스타일. (2014.6.21), <http://www.han-style.com>